

테마만남 - 책의 온기, 작가의 향기



Gallery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자의 운명

글_이주연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소설가 윤후명 씨가 6년 만에 신작소설집 《새의 말을 듣다》를 출간했다. '자아 찾기 여행'으로 특징지어지는 작가 특유의 소설 미학이 10편의 단편을 통해 사무칠 정도로 아름답게 발휘된다. 그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고독한 채로 어디론가 떠난다. 《둔황의 사랑》《협계열차》《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하얀 배》의 '나'가 모두 그러했고, 이번 《새의 말을 듣다》의 '나' 또한 그러하다.

인사동의 한 찻집에서 만난 작가는 “'자아 찾기 여행'이라는 특유의 작품 세계는 여전하다”는 기자의 감상에 “아직도 '나에 대한 탐구'는 확고하지 않다. 미지의 세계로 길을 떠나는 주인공은 그래서 필연적”이라고 답했다.

줄거리보다 이미지가 선행하는 그의 소설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워진다. 시인 출신 소설가이기 때문일까. 독도 여행을 소재로 삼은 표제작 《새의 말을 듣다》나 복원된 청계천 주변을 따라 거닐며 떠오른 단상을 엮은 〈서울, 촛불 랩소디〉 등은 조각 그림이 모여 큰 그림을 이루는데, 이미지를 구축하는 방식이 시의 '문법'과 많이 닮아있다. 이런 그의 '시적 소설'은 '이야기 소설' 위주의 한국 문단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40년 전, 내가 등단할 때만 해도 우리 소설에서 '시적 요소'는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원래 시인으로 출발해서인지 소설을 쓸 때도 문학의 원형인 시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특별히 소설에 대한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과 똑같은 방식으로 소설을 쓸 수도 없었고, 쓰고 싶지도 않았습시다. 그런 결핍과 고민이 합쳐져서 새로운 방법론을 찾은 것이지요.”

사실 그가 즐겨 쓰는 '자아 찾기 여행'이나 '1인칭 주인공 시점' '열린 결말' 등은 그가 소설을 쓰기 시작한 1970년대에는 낯선 것이었다. 이런 시도들은 '새로운 소설'에 대한 그의 강박에 가까운 열정이 빛어낸 결과였다. 당시 비평가들에게 그의 소설은 '수상한(?)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소설의 정의는 다양합니다. 그것은 기존 소설을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길 '새로운 소설'에 대한 정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정의되었다면 그것은 새로운 소설이 아니니까요. 따라서 나는 '소설이란 무엇이다'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새로운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소설입니다. 거기에 더해,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감동'을 주어야만 한다는 것.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변하지 않는 방법론입니다.”

작가의 이런 방법론은 결국 삶의 근원에 대한 '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나는 어디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렇기에 그의 문장을 만나면 '독도' (《새의 말을 듣다》)라는 소재도 '절규하는 존재의 불가사의한 향내'가 풍기는 자의식의 공간으로 변하고, '청계천' (《서울, 촛불 랩소디》)의 풍경도 '형가리 부다페스트의 거리'와 '백남준의 작품'이 교차하는 사유의 매개 공간이 된다.

“'리얼리즘'에 길들여진 독자들에게 '어렵다'는 소리를 들곤 합니다. 이것은 '리얼리즘 소설'이 우위에 있다는 편견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리얼리즘 소설'과 '실험 소설', 이 두 개의 기둥이 소설이라는 지붕을 받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소설을 우위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새로운 소설들이 좀 더 나와서 소설의 가치를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소설적 지향이 미래에 있기 때문일까. 그는 소설 창작 외에 후학 양성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국민대 문창대학원은 물론 '한국 소설학당'이란 개인학교를 통해 그가 배출한 제자들은 현재 한국 문단 곳곳에 포진해 있다.

“최근 새로운 감각을 보여주는 젊은 소설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수명이 너무 짧습니다. 감각에 너무 치우칠 경우 깊이가 없어지고, 깊이에 너무 치중할 경우 가라앉아서 뜰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자신이 쓰는 분야에 있어서만은 어떠한 전문가보다 '윗길'에 있을 수 있는 공부야 필요합니다. 작가라면 전문가 이상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